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2> 성문과 보살

수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깊은 산속에서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들어 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연상한다. 번잡한 세상을 떠나 숲 속에 홀로 앉아 한가롭고 고요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수행자의 생활은 생각만 해도 아름답다. 그러나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는 수행자'라는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수행이라 할 수 없다. 가만히 앉아 마음을 닦고 있다고 하지만 고요한 마음에 집착하는 것은 중생의 또 다른 시비분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고 부처님의 말씀만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은 성문이라 부른다. 얼핏 보면 고귀한 수행자인 듯 하나 불법을 모르기에 수행에 진전이 없다. <선가귀감> 72장에서 말한다.

聲聞 宴坐林中 被魔王捉 菩薩 遊戲世間 外魔不覺

숲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성문은 마왕에게 붙잡히고, 세간에 노니는 보살은 외도나 마군이 보지 못한다.

'연좌(宴坐)'는 끄달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니,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좌선하는 것을 말한다. 성문은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하여 고요한 곳에서 홀로 앉아 선정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하고 고요한 경계에만 집착하는 한, 이 집착은 중생의 또 다른 시비분별이므로 이 시비분별이아말로 중생을 번거롭게 만드는 마왕이 된다. 숲 속에서 고요히 앉아 공부하는 것을 전부 알고 그것을 즐기고 있던 사리불에게, 유마 거사는 이것은 잘못된 수행이라고 지적하며 <유마경>에서 말한다.

"사리불이시여, 반드시 앉아 있는 것만이 끄달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연좌(宴坐)'가 아닙니다. '연좌'란 무엇이겠습니까?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라도 경계에 집착하여 몸이나 마음의 흔들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편안한 '연좌'가 되는 것입니다. 생멸하는 것이 아닌 늘 여여하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모든 위의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서도 세속적인 범부의 일을 하거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으로 감하여 정적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을 향하여

좋고 나쁨 분별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모든 경계 집착 떠나 무심해져야 진정한 수행자

자리위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된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수행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번뇌를 끊어내지 않고서도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편안한 '연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올바른 좌선을 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도 그 공부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舍利弗 不必是坐 爲宴坐也 夫宴坐者 不於三界 現身意 是爲宴坐 不起滅定 而現諸威儀 是爲宴坐 不捨道法 而現凡夫事 是爲宴坐 心不住內 亦不在外 是爲宴坐 於諸見不動 而修行三十七道品 是爲宴坐 不斷煩惱 而入涅槃 是爲宴坐 若能如是坐者 佛所印可]"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모든 집착을 떠나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수행자를 우리는 보살이라 부른다.

보살은 범어인 보리살타(菩提薩埵)를 줄인 말이다. 뜻으로 번역하면 '각유정(覺有情)'이라고 한다. '보리'는 '각(覺)'의 뜻이 있고 '살타'는 '유정(有情)' 곧 중생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위로는 지혜로써 무상보리(無上菩提)를 구하고 밑으로는 자비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육바라밀행(六波羅蜜行)을 실천한다. 지혜를 기르는 자리행(自利行)과 자비심을 기르는 이타행(利他行)을 함께 오롯하게 실천하여 그 힘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불과(佛果)를 성취하니, 보살은 가만히 앉아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웅맹스럽게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자신의 공부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삶과 떨어져 사는 성문과 연각의 경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고요한 산속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세간에 노닐면서도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며 수행하는 사람이다.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을 있을 수 없고 깨달음의 성취도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다. 깨달음의 세계는 환상도 허구도 아니다. 자리아타를 실천하는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현실의 향기이며 여운이다. 사산 스님은 말한다.

聲聞 取靜爲行故 心動心動則 鬼見也 菩薩 性自空寂故 無迹 無迹則 外魔不見 此合論二乘菩薩

성문은 고요한 경계를 취하여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마음이 움직이면 귀신이 보게 된다. 보살은 그 성품이 본디 비어서 고요하므로 그 마음에 자취가 없으니, 자취가 없다면 외도와 마군들도 볼 수 없다. 여기서는 이승과 보살을 함께 말해 놓았다.

고요한 경계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니 경계가

남아 있어 시비분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이면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감을 수 없으니 그 틈을 타 귀신에게 홀리기 쉽다. 그러나 대승 보살은 그 성품이 본디 비어서 고요하므로 움직일 마음이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시비분별 하는 마음의 자취가 있을 수 없다. 자취가 없으니 외도와 마군들이 찾을 수 없고, 그러므로 마구에게 홀릴 일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경계에서 집착을 떠나 무심해져야 진짜 보살이요 참된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말한다.

"선지식들이여, 도란 모름지가 막힘 없이 흘러가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히게 되는가?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또는 막힘없이 흘러간다.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이를 일러 스스로 법에 묶인 것이라고 한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은 공부라고 주장하면, 이는 숲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공부로 알고 즐기면 사리불이 유마 거사의 호된 꾸짖음을 받는 경우와도 같을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의 고요를 보되 일어나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공부를 삼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에 집착하여 잘못된 생각을 낸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큰 잘못인 줄 알아야 한다. [善知識 道須流通 何以却滯. 心不住法 道即流通 心若住法 名爲自縛. 若言 坐不動是 只如舍利弗 宴坐林中 却被維摩詰訶 善知識 又有人教坐 看心觀靜 不動不起 從此置功. 迷人不會 便執成顛 如此者衆. 如是相教 故知大錯]"

사산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三月懶遊花下路 一家愁閉雨中門. 산들 바람 꽃길에서 오락가락 노니는 데 어느 집은 빗속에서 문을 닫고 근심 걱정.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4>



침묵

상담(相談)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서로 이야기 한다'는 뜻이다. 즉 '대화'가 상담의 유일한 도구며 수단이다. 그런데 상담 장면엔 침묵도 있다. 대화를 전제로 하는 상담에 침묵이라니, 언뜻 보아서는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 침묵은 말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묵은 상담자와 내담자 중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상담자는 질문과 반응, 명료화 등의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생각과 감정, 행동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가 말을 멈출 때마다 즉각 언어

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침묵한다.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어떤 확인을 바라거나 해석을 해주길 원해서 침묵하기도 한다. 때로 내담자 스스로 한 얘기에 대해 생각하느라 침묵하기도 하고, 이전에 표현했던 감정 상태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마음을 추스르느라 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내담자의 침묵은 다양하므로 각 경우에 따라 침묵을 깨는 게 좋을지 지속시키는 게 좋을지, 상담자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현대의 상담자처럼 의도적인 침묵을 지키기도 하였다. 이를 불교에서는 사치기(捨置記) 또는 무기(無記)라

부처님은 대답할 가치 없는 질문에는 침묵 일관 의문이 얼마나 무익한지 일깨우고 연기법칙 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적절한 침묵을 지킴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이 한 표현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고, 통찰에 이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 따라서 상담자가 의도적으로 조율하는 침묵은 상담이 잘 진전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특별한 대화기법의 하나다.

내담자가 침묵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상담 초기에 일어나는 침묵은 대개 상담 관계에 대해 두렵게 느끼거나 부정적일 때 일어난다. 또한 상담자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저항 때문에 침묵하기도 한다. 내담자가 할 말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침묵이 일어난다. 어떤 때는 내담자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지만 적절

고 한다.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무엇이며, 인간 존재의 근원과 종말은 어떠한가?" 또는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혼과 육체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은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때로는 그러한 의문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일깨워 주고 연기(緣起)의 법칙을 설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기도 했다. 부처님께서 우주의 근원 또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한 의문에 매달리는 것이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이었다. 또한 그에 대해 답하면 오히려 잘못된 견해나 의혹이 점점 더 커지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불이문(不二門)

사찰을 찾는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문은 일주문이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불이문(不二門)으로 이어지는 문들은 입실에서부터 무한한 깨달음의 과정을 산문의 배치로 보여준다. 일주문에서 출발한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천

왕문을 지나 수미산 정상에 오르면 도리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도리천을 지나면 해탈의 경지를 의미하는 불이문이 있다. 수미산 정상에 불이문을 세워서 번뇌와 깨달음의 세계를 구별하는 것이다.

사찰 입구에서 본당에 들어서는 마지막 문인 불이문은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불이문을 통과해야만 진리의 세계인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한다. 불이의 뜻을 알게 되면 해탈할 수 있으므로 해탈문(解脫門)이라고도 한다.

불이문은 둘이 아닌 진리로서 모든 번뇌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어 부처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불이(不二)란 둘이 아닌 경지, 즉 나와 내가 둘이 아니요, 생사가 둘이 아니요,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세간과 출세간, 선과 악, 색과 공 등 상대적인 것들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불교의 중도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불이문을 들어서면 불자는 해탈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불자라면 사찰을 찾을 때마다 일주문에서 발심해 불이문에 이르러 깨달겠다는 발원을 가져보자.

김지연 기자



그림 : 문병성

무문관 수행 중
한 송이 꽃을 그려 놓고,
열반에 든
한 선사의 치열했던
삶과 수행의 기록!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탄하 삼성선사 자서전
吞河三省禪師 自敘傳

53일간의 단식참회로 양심이 곧 불성임을 깨닫지만 몸은 불구가 된 삼성스님의 초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이야기.

모든 위선과 구속에 거침없는 사치후를 하여 괴락승으로 불렸던 한 선사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삶과 수행의 생생한 현장기록인 만행일기와 무문관 수행일기는 수행자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자 체험담이다.

은조사 최만희 편저/인국판/304쪽/10,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926-8361 영입 02)3672-7181-5

동학사강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출가 이야기

진중하면서도 발랄한 새내기 스님들의 마음자리와 출가생활에 대한 성찰 구법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 혼자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그려져 있다.

바람 속 이야기

동학사 편집실 | 국판 | 240쪽 | 값 9,000원

보살 유럽과 아시아 문화를 한 몸에 담다

실크로드와 중국을 건너 우리에게 온 보살의 문화여행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기만 한 보살상에는 어떤 역사가 투영되어 있고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일까? 보살은 어떻게 탄생했고 그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살상에는 어떤 민족의 어떤 문화가 영향을 끼쳤는가? 보살의 모습, 보관, 지물, 천의, 장식물 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나라 보살상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최영순 저 | 국판변형 | 184쪽 | 값 7,500원

www.buddhabook.co.kr

은조사